

경북도, 친환경 에너지원 '곤충사업' 육성 박차

친환경 저탄소 단백질 급부상
식량안보 위기 대응책 마련
대학·기업·연구기관 등 '원팀'

경상북도는 대학·기업·연구기관·생산자단체 원팀(One Team) 협력을 통해 신생명에너지원(대체단백질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식용곤충에 방점을 두고 곤충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코로나19 확산과 세계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안보 위기 대응책으로 곤충을 새로운 단백질 공급원으로 육성, 식용 곤충산업 핵심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본격적인 곤충산업 육성을 예고한 바 있다.

곤충은 소, 돼지보다 10분의 1의 사료로 단백질 1kg을 생산할 수 있을 뿐



경북도가 '생명에너지원'인 곤충산업 육성을 본격화한다.

만 아니라 메탄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은 2850분의 1배, 물 사용량은 1500분의 1에 불과하여 최근 주요 키워드인 '그린뉴딜'과 '탄소중립'에 맞

물려 친환경저탄소 단백질 '신생명에너지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기업, 연구기관과 연계한 원팀(One Team) 협력을 통해 ▲

원료공급 안정화 ▲ 생산가공기술 고도화 ▲ 일반식품화 ▲ 유통 활성화 총 4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곤충산업 도약의 발판을 만든다.

도는 원료공급 안정화를 위해 곤충 및 양잠 생산자단체와 연계하여 곤충 원료 대량 전처리·1차 가공시설 건립과 ICT 기반 스마트 사육모델 연구를 추진하고 생산자단체는 공장형 생산체계 구축을 통해 고품질 곤충원료 및 소재를 기업과 가공업체에 연중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경북도는 '21년 곤충산업 분야에 4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에스푸드(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곤충산업의 지속적인 육성 및 상호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이미 체결했다.

/경북=김귀열 기자 gold6830112@metroseoul.co.kr

영주시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

경북 영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사업은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환경개선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코로나 이후 골목상권을 회복할 수 있는 맞춤형 활력지원 사업을 추진해 지역경제 발전을 유도하는데 목적을 뒀다.

먼저 시장 기능회복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총사업비 45억 원을 들여 추진 중인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올해 안에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선비골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총사업비 23억 5000만원으로 오는 12월까지 비가림시설 설치사업이 완료되어 쾌적한 시장 환경이 조성된다.

/영주(경북)=김귀열 기자

화순군, 兒·여성·고령 3대 친화도시 인증

고령사회 대응 방안 모색

화순군이 민선 7기 역점 과제로 추진한 '아동·여성·고령 3대 친화도시 인증' 지자체가 됐다.

화순군은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최근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Global Network of Age-Friendly Cities & Communities, GNAFCC) 가입 승인(인증)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앞서 화순군은 지난해 12월 잇따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았다.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는 세계보건기구가 세계적인 고령화와 도시화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세계적 프로젝트다.

나이 먹는 것에 불편하지 않으며 연

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살고 싶고, 평생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전 세계 주요 회원 도시와 고령사회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이에 관한 정보 공유·교류 활동을 펼치고 있다.

화순군은 만 65세 노인 인구가 26.9%에 이르는 초고령사회로 2019년 25.1%, 2020년 26%, 2021년 26.9%로 매년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화순군은 '노후가 행복한 세대연대 1번지 화순'을 비전으로 ▲안전과 고령친화 시설 ▲교통편의 환경 ▲주거 편의 환경 ▲지역사회 활동 참여 ▲사회적 존중·포용 ▲고령 자원 활용과 일자리 지원 ▲의사소통과 정보제공 ▲지역복지와 보건 등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가이드 8대 영역의 실행 방안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강성대 기자 ksd1008@



다리 옆 바로 다리 사진

영양대티골 단풍골 조성사업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논란

다리 바로 옆에 다리 설치 '의문' "주변 자연경관과 어울리지 않아"

2021년 2월 준공예정을 앞두고 있는 영양군 일월면 용화리 대티골 일원 단풍골 조성사업이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단풍골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이 마을은 지난 15년 간 자연치유생태마을을 기본 컨셉으로 마을만들기를 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 개념은 이 마을이 영양에서는 최고의 자연치유조건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어메니티(amenity)를 잘 살려 마을을 조성해 왔다.

그런 이곳에 10억원의 적지 않은 사업비를 들여 단풍거리 조성, 현수교 및 데크 설치, 포토존 설치, 단풍나무 식재 등이 이뤄졌다. 주민 A씨는 이 마을의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 현수교(사진), 평지에 데크를 설치하여 보기 좋게 하려했지만 정작 이러한 구조물은 자연스러운 대티골 길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면 차라리 '야자수 매트'를 깔아서 자연스러움을 연출했다더라면 좋았을 텐데"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다수 대티골사람들은 작은 오솔길, 하천과 따라 걷는 길, 자연스러운 길 등이 외씨버선길 대티골구간(치유의 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사업이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주변 자연경관과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다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비싼 다리가 여기에 세워져야 하는지, 그리고 토지매입비를 사용하면서까지 평지에 데크를 설치하였는지에 대해서 의문에서 비롯됐다.

외씨버선길은 물론 대티골 치유의 길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좁은 오솔길을 걷고 자연과 마주하면서 겸손함을 배우며 더욱 더 심리적인 만족감을 얻을 수 있도록 계획된 길이다. 이런 길에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이런 구조물을 설치해야 했는지 관계기관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데크는 설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로 인한 불필요한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

위험한 구간이면 데크설치를 통해서 그 위험성을 감소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그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업은 그 마을의 특성을 외면하고 결국 다른 마을과의 차별성 없이 어디가도 비슷한 구조물과 시설, 프로그램 등이 그렇지 않아도 접근성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영양으로 발길을 재촉할 수 없을 것이라 분석이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여수시

다자녀 행복카드 홍보 나선다

여수시가 다자녀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확 낮춰주는 '전남 다자녀 행복카드' 발급 확대를 위해 홍보에 나섰다.

다자녀 행복카드는 지난 2008년부터 전남도와 농협이 협약을 맺어 운영 중인 사업으로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다자녀 행복카드는 도내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태아 포함) 가정 중 막내가 13세 이하인 경우 발급할 수 있다.

카드를 이용할 경우 학원비 10%, 농협하나로마트 5%, CGV·롯데시네마 건당 1500원, 서적 3% 등 각종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 GS칼텍스 리터당 80원 포인트 적립을 비롯해 전남도 내 다자녀 행복카드가맹점에서 사용할 경우 3%에서 최대 20%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특히 연회비는 최초 가입 시 5천 원만 납부하면 평생 무료다.

/전남=김용학 기자 jiaacecom@

부산시, 촘촘한 '청년 주거 안전망' 구축

4개 사업... 63억 예산

부산시가 저성장고용불안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 안전망을 점검해 지역 정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추진하는 사업은 4개 사업이며 63억원의 예산으로 7100여 명(세대) 지원한다.

주거든든 패키지는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월세지원 ▲머물자리론 ▲신혼부부 주택용자대출이자 지원사업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은 갭투자 등으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주거취약계층인 청년들에게 전세보증금 회수에 대한 법적 보호망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전국 최초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2020년 9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예산은 2억원이

다. 지난해 큰 호응을 보여 올해는 지원대상을 3000여 명으로 확대하고 맞벌이 부부에 대한 소득 기준도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월세지원 사업은 부산시에서 광역단위 전국 최초로 2019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30억원으로 10개월간 청년 3000명에게 지원한다.

머물자리론 사업은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최대 3000만원)에 대한 이자를 부산시에서 지원해 청년들이 대출이자 부담없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사업 예산은 8200만원이며 지원 인원은 100여 명이다.

또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용자대출이자 사업을 추진한다. 부산지역(예비)신혼부부 1000세대에 전세보증금 대출 최대 1억5000만원을 연 1.9% 이자로 지원한다. /부산=하위원 기자 bsmorning@

나주시

2021년 SNS 서포터즈 출범

천년 역사문화도시, 목사고를 나누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해줄 2021년 SNS 서포터즈가 출범했다.

나주시는 최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비대면 '2021년 SNS 서포터즈 발대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서포터즈는 지난 1월 공개모집과 심사를 거쳐 총 20명(남5·여15)을 선발했으며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됐다.

올 연말까지 축제를 비롯한 각종 행사, 대표 관광명소·먹거리에서부터 실생활에 유용한 시책, 시민(단체)의 혼 혼한 미담, 일상에 활력을 주는 문구 등 나주만의 매력을 뽐내는 온라인 홍보 대사 역할을 수행한다.

/전남=강성대 기자